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효 순*

The Effect of Stress and Impulsivenes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 Focusing on Control Effect by Type of Schools

Kim Hyo Soon*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을 매개로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 학교 유형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이 부분적으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의 감소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다양한 향상 프로그램 제공의 방식 및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 Keyword : 스트레스, 충동성, 외톨이 성향, 학업성취감, 사회적 유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empirical baselinedata supporting for adolescents by researching the

• 제1저자 : 김효순

• 투고일 : 2011. 05. 02, 심사일 : 2011. 05. 10, 게재확정일 : 2011. 05. 19.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Gangwon Univ, Lecturer at Dept. of Social Welfare)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Chosun Univ, Lecturer at Dept. of Social Welfare)

control effects by type of schools related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ng the oiettolie propensity by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400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interviewed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s the result of study,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oiettolie propensity partially, and oiettolie propensit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meaningfully. and,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play roles on their oiettolie propensity partially as control factors by type of schools. and, oiettolie propensit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by type of school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grams for reduction of oiettolie propensity and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Keyword : Stress, Impulsiveness, Oiettolie Propensity,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1.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삼게 되고, 부모 또는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친구들과의 교제는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친한 친구와의 우정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ullivan(1953)에 따르면 부모나 친척,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청소년이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에서,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따돌림'의 형태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돌림'의 개념이 친구들에 의한 좀 더 적극적인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면, 친구들로부터 '무시되는' 특징을 지닌 외톨이 역시 친구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을 겪게 된다.

친구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외톨이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외톨이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쉽다[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수많은 영역이 존재하지만 친구가 없어 홀로 지내며 친구들에게 무시되는 외톨이 청소년과 이들

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의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충동성은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 없이 본능적·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충동성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1][17][19].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친구가 없는 청소년인 '외톨이'의 정의를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으로 실제생활에서 친구가 없이 주로 혼자 지내는 학생들로 정의하며, '외톨이 청소년'인 또래 집단이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과 '왕따 외톨이' 청소년인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외톨이 성향은 이러한 개념 중 또래집단에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 정의하였다[4][7][8].

학업성취감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atz와 McClellan(1997)은 사회적 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13][20].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개념도 낮고,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후의 삶에서 부적응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21][22][23][24].

지금까지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수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가장 중요한 친구관계로 인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다양한 변인들과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대한 학교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유형인 전문계와 인문계 학생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요인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이들 변수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입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유기체의 적응과 조절에 가해진 압력이나 외부의 요구적인 힘을 말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1997)은 생활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 할 때는 효율성이 상실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활과 복지에 유해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스

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 등을 제시 하였다[26].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지극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 외상적 사건부터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골칫거리까지 다양한 범주를 갖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주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18].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14].

발달과정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등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17].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 [2].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요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일상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친구와 교사 및 가족에게서 받는 것으로 구분한다.

첫째, 친구에 의한 스트레스로 친구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움을 느끼며 능란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정의적 결합이라고 보았다.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우관계는 필수적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교사보다는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6]. 청소년기가 생활사건에서의 스트레스 발생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는 정서적 완충제 역할로서 청소년들을 스트레스의 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친구관계가 제공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그것이 적응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유대, 교사의 인성적 특성, 가치관이 학습동기 증진에 대한 태도, 지적성취에 대한 열

의, 지식 등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도 있다. 스트레스에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 기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사의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사회화의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악물을 포함한 부적응적 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에서 부모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일차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청소년의 비행발생과 예방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가족은 청소년 개인에게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정의는 위험이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이라고 본다[18]. Barratt과 Patton(1983)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시간에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충동성은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 없이 본능적·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충동성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16]. Barratt과 Patton (1983)은 충동성과 외톨이 성향에서 측정하고 있는 대인관계측면을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며,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감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권재환(2005)은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과 중독적 사용과 관련하여 대인관계기술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대인관계기술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외톨이 성향

인간은 모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대인관계는 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인관계 중 친구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문제해결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이때의 친구관계들은 외부의 압력,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 청소년기에 가정이 아닌 곳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처음 맺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청소년기에 갖는 대인관계는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인격형성과 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에 ‘왕따’를 경험하거나 지속적인 거부, 무시당하는 경험을 갖거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성인기에 갖게 될 부적응적 문제를 생각해 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시형·여인중·김종진(2005)은 친구가 없는 청소년인 ‘외톨이’의 정의를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으로 실제생활에서 친구가 없이 주로 혼자 지내는 학생들로 정의하였다. 하위유형으로 ‘외톨이 청소년’인 또래 집단이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과 ‘왕따 외톨이’ 청소년인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외톨이 성향은 이러한 개념 중 또래집단에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 정의하였고[7].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친구로부터 소외당하는 청소년을 외톨이 성향으로[4] 정의하였다. 즉,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친구에게 직접적, 적극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고,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서 이 분류 중에 외톨이는 ‘또래 집단에게 무시당하는 집단’쪽에 비교적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8].

4.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

첫째,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학업성취인 부진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게 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어 결국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atz와 MacClellan(1997)은 사회적 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즉, 사회적 유능감은 개별적인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규범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3].

사회적 유능감은 광의의 의미로 개인이 속한 사회, 연령, 성별에 맞는 발달적 과업의 성취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학습과 또래수용 등의 구체적인 성취로 정의한다. 아울러 과거에 이룬 성취경험과 미래에 성취를 수행할 능력을 개인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22]. 사회적 유능감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선택,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발달시키는 개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자아개념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개념도 낮고,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후의 삶에서 부적응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21][22][23][24].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에서 정립된 개념을 토대로 하여 독립변수로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설정하고, 스트레스의 하위변수로 친구, 교사, 가족스트레스를 설정한다. 매개변수는 외톨이 성향을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설정한다. 또한 상황조절변수로 학교유형인 인문계와 전문계 구분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요인과 관련한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과 관계를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관계에

있어서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연구가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과 학업성취감 및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황조절변수로 학교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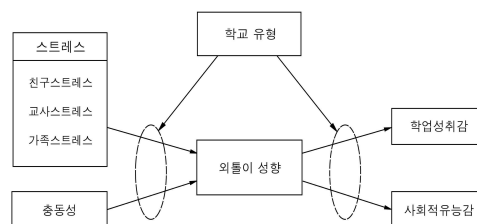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립한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 설	내 용
가설 1	1) 친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교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족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5)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외톨이 성향은 사회적 유능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칠 것이다
가설 3	7) 친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8) 교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9) 가족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11)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외톨이 성향은 사회적 유능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스트레스 및 외톨이 성향과 관련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와 전문계 포함 4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총 400부 중 회수된 설문지 390부 중에서 자료에 오류가 있는 4부를 제외하고 386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조사방법은 확률표본추출방식인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방법과 비확률표본추출방식인 할당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인 AMOS 16.0 버전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므로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사회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3], 분석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해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연구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요인들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SPSS 17.0 버전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5].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Cohen, Kamarck과 Merme lstein (198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친구스트레스는 청소년이 받고 있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친구스트레스는 친구의 따돌림, 무시, 의사소통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934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스트레스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는 방법, 혼 낸 적이 있는 것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800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스트레스는 부모님이 학업성적을 가지고 형제나 친척과 비교, 공부강요,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89로 나타났다.

넷째,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ratt의 충동성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어떤 일이든 쉽게 몰두할 수 없고, 신중하지 못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7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85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톨이 성향은 이시형(2000)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에서 친구가 없는 것과 친구들로부터 소외와 외로움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11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949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
Table 2. Measurement instruments

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친구 스트레스 1.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2.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3.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4.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교사 스트레스 1.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된다. 3.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나를 혼 낸 적이 있다. 4.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
	가족 스트레스 1. 부모님은 나의 성적에 기대가 크다. 2. 학업성적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 난 적이 있다. 3. 학업성적을 가지고 다른 형제나 친척과 비교 하신

		적이 있다. 4.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편이다. 5. 학업성적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충동성	1. 어떤 일이든 쉽게 몰두 할 수 없다. 2.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3.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안 될 때는 다른 일을 한다. 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5.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6.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7.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한다.
매개 변수	외톨이 성향	1.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없다. 2.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3.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어 소풍이나 체육대회를 걱정한다. 4. 점심시간에 혼자서 점심을 먹는다. 5. 학교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6.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7.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8. 내가 부탁할 때마다 친구들이 이유 없이 거절한다. 9. 체육시간, 단체 활동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하지 않는다. 10. 나는 친구가 없다. 1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학업 성취감	1. 나는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2.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3.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편이다. 4. 수업시간에 흥미를 느낀다. 5.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종속 변수	사회적 유능감	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3.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쉬운 일이다. 4. 나는 어디를 가나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을 잘 한다.

여섯째, 학업성취감은 공부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 개발한 것을 김명자(200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부에 대한 보람, 좋은 성적, 수업시간에 흥미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865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회적 유능감은 이시형, 김은정, 감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친구들과 운동하며, 친구를 잘 사귀며, 반에서 인기가 있는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α 계수가 .858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전문계와 인문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G광역시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고 각 학교의 1,2학년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결측값 (명/%)
성별	남학생	285	73.8	73.8	0
	여학생	101	26.2	100	
학년	1학년	134	34.7	34.7	0
	2학년	252	65.3	100	
유형	인문계	195	50.8	50.8	0
	전문계	190	49.2	100	
용돈	2만원 미만	81	21.0	21.0	0
	2만원 이상-4만원 미만	133	34.5	55.4	
	4만원 이상-6만원 미만	98	25.4	80.8	
	6만원 이상-8만원 미만	30	7.8	88.6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4	3.6	92.2	
	10만원 이상	30	7.8	100	

2. 측정도구검증

2.1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외톨이, 충동성, 가족 스트레스, 학업성취감, 사회적 유능감, 친구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등 7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KMO(Kaiser-Meyer-Olkin)는 .897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41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외톨이 성향, 충동성, 가족스트레스, 학업성취

감, 사회적 유능감,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등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Table 4.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analysi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 친구 스트레스	v1	.830	.337	.158	.125	-.064	-.059
	v2	.822	.299	.150	.149	-.066	-.097
	v3	.760	.369	.209	.063	-.143	-.221
	v4	.715	.314	.214	.067	-.122	-.163
2. 교사 스트레스	v1	.162	.700	.259	.096	-.143	-.098
	v2	.185	.688	.232	.093	-.122	-.072
	v3	.065	.664	.102	.250	-.202	-.118
	v4	.095	.654	.232	.231	-.223	.042
3. 가족 스트레스	v1	.104	.120	.847	-.036	.303	.135
	v2	.094	.204	.844	-.021	-.047	.052
	v3	.063	.182	.806	-.008	-.038	.064
	v4	-.001	.168	.777	.005	.029	.009
	v5	-.014	.152	.750	.177	-.067	.060
4. 충동성	v1	.071	.145	-.070	.780	-.078	.086
	v2	.086	.042	-.161	.714	.022	.285
	v3	.115	.187	-.083	.707	-.063	.068
	v4	.103	.198	-.023	.707	.012	-.001
	v5	.052	.105	.072	.673	-.096	.109
	v6	.035	.085	-.136	.639	-.077	-.096
	v7	.121	.136	-.131	.617	-.044	.189
5. 외톨이	v1	.018	.018	-.044	-.070	.846	.168
	v2	.053	.053	.091	-.175	.841	.120
	v3	.027	.027	-.023	.024	.812	.047
	v4	.048	.048	.119	-.041	.811	.126
	v5	.093	.093	-.005	-.088	.811	.256
	v6	.118	.118	.067	-.130	.802	.170
	v7	.089	.089	.061	-.073	.788	.292
	v8	.126	.126	.014	-.234	.781	.038
	v9	.051	.051	.011	-.219	.772	.132
	v10	.110	.110	-.017	-.221	.723	.011
	v11	.077	.077	.134	-.232	.719	.057
6. 학업 성취감	v1	-.022	-.075	.107	.047	-.038	.835
	v2	-.110	-.113	.068	.075	-.066	.832
	v3	-.036	-.062	.017	.060	-.068	.765
	v4	-.009	-.060	-.124	.118	-.001	.755
	v5	.008	-.095	.010	.113	-.035	.728
7. 사회적 유능감	v1	-.155	-.075	-.013	.057	-.128	.030
	v2	-.137	-.083	.027	.006	-.072	-.104
	v3	-.247	-.067	-.048	.063	-.024	-.082
	v4	-.322	-.005	.024	.254	-.185	.064
	v5	-.236	-.053	-.069	.140	-.024	.104
eigen value		3.134	2.469	3.651	3.951	7.775	3.448
분산비율(%)		7.645	6.022	8.904	9.637	18.96	8.410
누적비율(%)		7.645	13.66	22.57	32.20	51.17	59.58
신뢰도Cronbach Alpha		.934	.800	.890	.853	.949	.865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검증

3.1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376.558, 자유도(df)는 767, χ^2 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TLI, 비교적합지수(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46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74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김계수, 2009; 이학식·임지훈, 2007).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Overall model fit index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R	RMSEA	NFI	IFI	RFI	TLI	CFI	AGFI
적합지수	2376.558 (.000)	767	.874	.046	.074	.897	.925	.875	.909	.922	.846
최적기준	p < .05	-	.90 이상	.05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3.2 연구가설의 검증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Table 6.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C.R.(t)	p	채택 여부
	비표준 회계수	표준화 계수				
1. 친구스트레스 → 외톨이 성향	.552	.554	.064	8.638	.000**	채택
2. 교사스트레스 → 외톨이 성향	.038	.045	.062	.620	.535	기각
3. 가족스트레스 → 외톨이 성향	.011	.017	.034	.309	.757	기각
4. 충동성 → 외톨이 성향	.010	.011	.058	.174	.862	기각
5. 외톨이 성향 → 학업성취감	-.183	-.137	.075	-.2460	.014*	채택
6. 외톨이 성향 → 사회적 유능감	-.498	-.477	.059	-.8460	.000**	채택

* : $p \leq .05$, ** : $P \leq .0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계수가 .554이고, C.R 값은 8.638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스트레스(.045, .620), 가족스트레스(.017, .309), 충동성(.011, .174)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무시하는 것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등의 친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인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지 않고, 혼자서 점심을 먹는 것, 친구가 없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및 가족 관련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2에서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표준화계수 값 -.137, C.R값 -2.460)과 사회적 유능감(표준화계수값 -.477, C.R값 -8.46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편이며,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어디를 가나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톨이 성향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친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외톨이 성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과 4의 검증결과를 <표 7>과 같다.

표 7. 조절효과 검증결과
Table 7. Test of moderating effects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C.R.(t)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전문	인문	전문	인문	전문	인문	전문	인문	전문	인문	
1. 친구스트레스	.55	.53	.50	.57	5.4	6.4	.00	.00	채택	채택	있음

-외톨이 성향	2	9	7	6	74	46	0	0			
2. 교사스트레스	.07	.07	.07	.09	.70	1.0	.48	.31	가각	가각	없음
-외톨이 성향	3	8	8	7	0	10	4	2			
3. 가족스트레스	.05	.00	.08	.01	.96	.19	.21	.84	가각	가각	없음
-외톨이 성향	2	8	0	4	6	1	0	9			
4. 충동성	.04	.03	.05	.03	.48	.47	.62	.63	가각	가각	없음
-외톨이 성향	6	6	0	8	5	8	8	3	가각	가각	없음
5. 외톨이 성향	-.02	.27	-.10	-.19	-.18	-2.5	.85	.01	가각	채택	있음
→ 학업성취감	0	6	8	7	8	50	1	1			
6. 외톨이성향	-.24	-.70	-.27	-.61	-.33	-7.8	.00	.00	채택	채택	있음
→ 사회적유능감	6	0	3	4	38	34	0	0			

첫째, 연구가설 3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전문계 표준화계수는 .552이고, C.R 값은 5.474이며, 인문계는 표준화계수가 .539, C.R 값은 6.446으로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계와 인문계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계가 인문계보다 표준화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의 스트레스로 인한 외톨이 성향이 전문계 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가설 4에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검증결과 전문계의 표준화계수는 -.020이고, CR 값은 -.188이며, 인문계는 표준화계수가 .276, CR 값은 -2.5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준화 계수는 전문계 -.246, 인문계 -.700, CR 값은 전문계 -3.338, 인문계 -7.834로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전문계 학생들에서 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및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2에서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가설 3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계와 인문계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스트레스로 인한 외톨이 성향이 전문계 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가설 4에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친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전문계 학생들 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분석해 본 결과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와 관련 스트레스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적응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구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으며, 학업성취감과 사회적으로 유능감을 키워 준다면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

성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자신의 위치에서 원하는 바를 노력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래와 갖는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여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관리해주고 해소해주는 교육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여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게 되면 학업에 있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친구, 가족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학교유형에 따라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추출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JHKwon, "Relation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o Internet Game Addiction: Testing the Mediation Model of Interpersonal Skill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5.
- [2] YJKang, "A Comparative Study of Average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 about the Life Stressors and Coping",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Women's University, 1996.
- [3] GSKim, "AMOS 16.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Hannarae Publishing, 2008.

- [4] JJKim, "Oiettolie Hidden in a Snail Shell ", Happy hour, 2006.
- [5] SHPark, and others, "SPSS17.0 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Hannarae Publishing, 2009.
- [6] YSPark, and others,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 - 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94-118, 2000.
- [7] JWSon,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Neglect or Rejectio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3(1), 177-188, 2007.
- [8] JHSon and other,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 ness and Game Addiction in Adolescents : Verifying the Meditating Effects of Oiettolie Propensity", Psychotherapy, 7(2), 91-106, 2007.
- [9] JJ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21Century Publishing, 253-255, 2008.
- [10] SYWoo,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 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Master's Degree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
- [11] SHLee, and others,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 ics of Oiettoli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3 No.1, 147-162, 2001.
- [12] HSLee, and oth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MOS 6.0", Bubmunsu, 2007.
- [13] HW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cale of Little Children'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or Teacher",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5.
- [14] OJJeong, "Adolescent's Development", Hakjisa, 1998.
- [15] YSHwang, "A Study on School Record, Academic Self-Co nception and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Hanyang University, 1997.
- [16] Barratt, E. S., & Patton, J. H, "Impulsivity : Cong 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 lates", In M. Suckerman(Ed.), Biological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pp. 77-122). Hillsdale, NJ : Erlbaum, 1983.
- [17] Cohen, S., & Hobermanl, A,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1983.
- [18] DuBois, D. L., Felner, R. D., Mears H., & Krier, M,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ce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1994.
- [19] Gray, J. P, "The relations of teacher education, st udent' resiliency, work, motivation, and school-level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2001.
- [20] Katz, L. G., & MacClellan, D. E, "Fostering chil 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1997.
- [21] Kupersmidt, J. B., & Dodge, K. A, "Children's peer relation: From development to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 [22] Masten, A. S., & Coatsworth, J. D "The develo 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1998.
- [23] Masten, A. S., Coaswoth, J. D., Neeman, J., Gest, S. D., Tellegen, A., & Garnezy, N,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39, 1995.
- [24]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 en, A., Garnezy, N., & Ramirez, M,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1999.
- [25]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 iatry", New York: norton, 1953.
- [26] Wilkinson. Greg, "Understanding stress", British Medical Association Family doctor series Vol. 013, 2005.

저 자 소 개



김효순

2009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2009년~현재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2011년 : 국립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메일 : hyokin09@naver.com